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대한 일고찰 :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 1990년판과 2000년판 분석을 중심으로

이 전*

A Study on the Middle-School Geography Textbooks of North Korea Published in 1990 and in 2000

Lee, Jeon*

요약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우리는 북한의 지리교육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지리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은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지리교육을 모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경과 2000년경에 각각 출판된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들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는 <표 1>과 같이 고등중학교 1학년용 지리부터 5학년용 지리까지 총 5권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고등중학교 1학년에서는 자연지리학 기본 지식을, 2학년에서는 한국의 자연환경과 지하자원을, 3학년에서는 우리 나라 각 지역의 생활을, 4학년에서는 세계지리를, 5학년에서는 자연지리학 심화 지식을 다룬다. 지리교육의 학습목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남한의 지리교과서와 심히 다르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김일성 부자가 우상화되고 있고, 지리교육의 학습목적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준비하는 데 있다.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우리말로 된 용어가 많다는 점 등에서, 남한의 지리교육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주요어 : 지리교육,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 지리 용어.

Abstract :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in the future, we need to understand the geography education system of North Korea. This paper deals with the middle-school geography textbooks of North Korea, published in 2000 and as well as in 1990, in order to look for a better way of geography education after the Unification. One geography textbook is used for each grade, respectively, from the first to the fifth grade of the North Korea's middle-school (table 1). The North Korea's geography textbooks are immersed in the unreasonable idolization of the Kim's family and the excessive devotion to the socialist system. But they may suggest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the improvement of geography terminology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common use of genuine Korean words. Key Words : geography education, North Korea's middle-school, geography textbook, geography terminology.

1. 들어가면서

지난 2000년에 성사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남북 교류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2005년 5월부로 정부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한 인원은 10만 명이 넘었다.¹⁾ 또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부터 2005년 6월 8일까지 금강산을 찾은 남한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3년 6월 30일에 착공한 개성공단에는 이미 시범공단이 가동되고 있는데, 2005년 6월 30일 현재 여기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3천 명이 넘었다. 2005년 말 현재 남·북한은 2006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해 놓

고 있다.

이러한 남북 교류는 필연적으로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남북 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의 분야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이질적인 교육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발전해온 남·북한의 교육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지리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은 북한 사회를 좀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전공 교수(Professor in Geography, College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glee@gsnu.ac.kr).

여할 것이고 나아가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지리교육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경과 2000년경에 각각 출판된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지리교과서에서 전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1990년대의 10여 년 동안 진행된 북한 사회의 변화가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지리교과서 특성 중에서 남한의 지리교육계가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탐색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지리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지리 용어는 순수한 우리말로 된 용어가 많기 때문에 남한의 지리교육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의 지리교과서를 교육목표,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평가 내용 등을 중심으로 남한의 지리교과서와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미루고,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리교과서 분석에만 초점을 두었다.

북한 지리교과서에 대해서는 『사회과 교육』 제 26호(“민족통일에 대비하는 북한 사회과 교육의 연구” 특집호, 1993)에 게재된 이양우의 연구, 남상준의 연구, 한봉희의 연구, 손용택의 연구가 있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연구소의 논문집 『북한의 사회과학 교육 실태』(1993)에 게재된 황재기의 연구가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수탁연구(CR 97-53; 남상준·손용택·유재명의 공동연구, 1997)가 있다. 또한 근래 김재완(2003)과 손용택(2004)은 남·북한 지리교과서를 비교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 지리교과서의 단원 내용을 지리 분야별로 분석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북한 지리교과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체적 특성을 조망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1990년경에 출판된 지리교과서와 2000년경에 출판된 지리교과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에 일어난 북한 사회의 변화가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다르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경에 출판된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 1·2·3·4·5학년용의 5권과 2000년경에 출판된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 1·2·3·4·5학년용의 5권을 고찰하고자 한다. 고

등중학교 지리교과서 5권 중에서도 특히 2학년용과 3학년용의 지리교과서를 좀더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2·3학년용의 지리교과서는 한국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지리교육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가 가장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북한의 외국어 표기법을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북한 고등중학교 4학년용 지리교과서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2. 북한 고등중학교 지리과의 학습목적과 학습목표

북한의 고등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지리 과목의 수업목표, 학습목표, 학습목적은 지리교과서 머리말에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리교과서 머리말은 1990년판 1학년용 지리교과서, 2000년판 1학년용·3학년용·4학년용 지리교과서에만 실려 있고, 나머지 지리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 북한의 고등중학교에서 지리 과목의 학습목적은 남한의 것과 심히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 1990년판 북한 지리교과서의 수업목표와 학습목표, 그리고 학습목적

1990년판 1학년용 지리교과서 머리말에서는 “우리 나라와 세계에 있는 땅과 바다, 날씨와 기후에 대하여 배우며 이러한 자연조건을 사람들의 생활에 리롭게 개조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또한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 어떤 자원이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리용되고 있는가, 이 자원을 캐내고 가공하는 광산, 탄광, 공장들이 어디에 놓여있는가에 대하여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지리학습을 잘하여 우리는 나라의 자연을 개조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나라의 자원을 찾아내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북한 고등중학교 지리 과목의 수업목표와 학습목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북한의 1990년판 1학년용 지리교과서에서는 “지리학습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께서 내놓으신 자연개조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또한 지리학습을 잘하여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세계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는데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아버지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 끝까지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믿음직스럽게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북한 고등중학교 지리 과목의 학습목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2000년판 북한 지리교과서의 수업목표, 학습목표, 학습목적

2000년판 지리교과서에서 밝히는 지리 과목의 수업목표, 학습목표, 학습목적 등은 1990년판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시되어 있다.

2000년판 고등중학교 1학년용 지리교과서[자연지리학 입문] 머리말은 1학년 지리의 수업목표와 학습목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세계에서는 수많은 자연현상들이 일어 난다.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있다. 지리에서는 바로 자연현상들의 법칙성과 원리들을 학습하게 된다. 1학년 지리에서는 지리학의 일반적원리들을 배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생겼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바뀌는가, 왜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가 등을 배운다. 또한 높은 산과 넓은 벌은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바다와 강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것을 배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00년판 고등중학교 3학년용 지리교과서[한국의 지역지리] 머리말은 3학년 지리의 수업목표와 학습목표를 “우리 나라의 자연조건은 북부지대와 남부지대가 다르고 산지대와 벌지대, 바다지대가 서로 다르다. 또한 자연조건은 도마다 다르고 도안에서도 군마다 다르며 군안에서도 지대마다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행정구역, 오랜 관습에 의해 령토를 서북지방, 동북지방, 중부지방, 서남지방, 동남지방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 나라의 5개 지방에 대한 지리적특징을 잘 알기 위하여서는 자연지리적요소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3학년 지리에서는 바로 우리 나라 각 지방들에 대한 자연 및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00년판 고등중학교 4학년용 지리교과서[세계지리]머리말은 4학년 지리의 수업목표와 학습목표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면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또한 “현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것을 더 잘 알뿐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가질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지리과목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의 자연과 경제, 생활풍속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000년판 고등중학교 1학년 지리교과서는 지리 과목의 학습목적을 “우리는 우리 나라를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리학습을 잘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고등중학교 2000년판 3학년 지리교과서는 “우리는 지리학습을 잘하여 내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미래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3.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체계

교육과정 편제 면에서 북한의 지리 과목은 남한의 지리 과목과 다르다. 남한에서는 지리 영역이 중학교 1학년용과 3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통합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통합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지리가 선택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리가 독립된 필수 과목으로서 고등중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매주 2시간, 즉 매년 72시간씩 총 320시간으로 편제되어 있다(김재완, 2003, 155-156).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는 <표 1>과 <표 2>와 같이 고등중학교 1학년용 지리, 2학년용 지리, 3학년용 지리, 4학년용 지리, 5학년용 지리의 5권으로 구성된다.

표 1. 북한의 지리교과서 구성(1990년경 출판)

북한 교과서 명칭	출판사	교과서 배포연도	분량	남한의 해당학년
지리(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1991년1월14일	87쪽	초등학교 5학년
지리(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1990년8월27일	88쪽	초등학교 6학년
지리(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1991년5월21일	140쪽	중학교 1학년
지리(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1991년6월14일	107쪽	중학교 2학년
지리(고등중학교 5)	교육도서출판사	1991년3월31일	116쪽	중학교 3학년

표 2. 북한의 지리교과서 구성(2000년경 출판)

북한 교과서 명칭	출판사	교과서 배포연도	분량	남한의 해당학년
지리(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2001년9월11일(1판)	87쪽	초등학교 5학년
지리(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1998년6월23일(1판)	94쪽	초등학교 6학년
지리(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01년8월10일(2판)	83쪽	중학교 1학년
지리(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2001년7월26일(3판)	115쪽	중학교 2학년
지리(고등중학교 5)	교육도서출판사	2001년7월21일(2판)	111쪽	중학교 3학년

북한은 고등중학교 1학년에서 지구와 지도, 기후, 물의 순환, 지형 형성, 토양, 식생대 등 자연지리학 기본지식을 다루고, 2학년에서는 한국의 자연환경과 지하자원을 학습하게 되며, 3학년에서는 우리 나라를 서북지방, 동북지방, 중부지방, 동남지방, 서남지방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다룬다. 4학년에서는 세계지리를 학습하는데, 세계를 아세아주, 구라과주, 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대양주와 량극지방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다루며 또한 그 지역에 속하는 세부지역과 국가를 다룬다. 그리고 5학년에서는 자연지리적 지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룬다. 이와 같이 북한 고등중학교의 지리교과서 5권은 지리학의 연구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지리교과서 5권의 목차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 <표 4>와 같다.

북한 지리교과서의 목차를 보면 자연지리학 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 과목에서 자연지리학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리학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남상준·손용택·유재명, 1997, 49). 남한의 경우에는 자연지리학 내용의 많은 부분이 과학 혹은 지구과학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의 고등중학교 1학년용과 5학년용 지리교과서 내용의 대부분이 남한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학 교과서나 고등학교의 지구과학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4. 북한 지리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북한 지리교과서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많이 실고 있다. 특히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인용문 형식을 빌려서 굵은 글씨로 나타냄으로써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 체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많이 실고 있다.

1) 북한 체제 및 김일성 부자에 대한 일방적 찬양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북한 체제 및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단히 많다. 1990년 판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호칭이 수령님[원수님]과 지도자[선생님]이었으나, 2000판에서는 수령님[대원수님]과 장군님[령도자, 원수님]으로 바뀌었다.

1990판 교과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었다.” 등이 매우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2000판 교과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

표 3. 북한 지리교과서의 주요 목차(1990년경 출판)

북한의 지리교과서	주요 목차		지리학의 분야
지리 (고등중학교 1학년용)	제1장 지구와 지도 제3장 지구우의 물 제5장 토양 제7장 세계의 주민과 나라들	제2장 날씨와 기후 제4장 지구겉면의 모양과 그 변화 제6장 자연대(식생대)	자연지리학 기본 지식 (지구과학, 지도학, 기후학, 기상학, 수문학, 지형학, 토양학, 식생학 등)
지리 (고등중학교 2학년용)	제1장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 크기, 행정구역 제2장 우리 나라의 지형 제4장 우리 나라의 바다 제6장 우리 나라의 강하천과 호수, 지하수 제7장 우리나라의 식물과 동물 분포	제3장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 제5장 우리 나라의 기후	우리 나라에 대한 자연지리학
지리 (고등중학교 3학년용)	제1장 서북지방 제3장 중부지방 제5장 서남지방	제2장 동북지방 제4장 동남지방 제6장 우리 나라의 경제배치	우리 나라에 대한 지역지리학
지리 (고등중학교 4학년용)	제1장 세계지리 개관 제3장 구라과주 제5장 북아메리카주 제7장 대양주와 량극지방	제2장 아세아주 제4장 아프리카주 제6장 남아메리카주	세계지리
지리 (고등중학교 5학년용)	제1장 지구 제3장 광물과 암석 제5장 대기속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과 기후 제6장 강하천 제8장 자연보호	제2장 지도 제4장 지각운동과 지형의 변화 제7장 바닷물의 성질과 그 운동	자연지리학 심화 지식 (지구과학, 지도학, 광물학, 지형학, 기상학, 수문학, 자연보호 등)

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온정속에[은혜로운 손길아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등이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북한 체제 및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중학교 2·3학년용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사례>

사례 1. (1990년 고등중 2, p.2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고원들은 여러모로 널리 개발되어 살기 좋은고장으로

전변되었다.

사례 2. (1990년 고등중 3, p.79) 강원도는 원산, 금강산, 룡포리를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다.

사례 3. (1990년 고등중 3, p.84) 금강산은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그대로 보존하고있을뿐아니라 문화휴양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휴식하는 문화휴양지로 되었다.

사례 4. (2000년 고등중 2, p.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이다.

사례 5. (2000년 고등중 2, p.8)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군릉이 발굴되고 단군의 유물이 나왔다.

사례 6. (2000년 고등중 3, p.4) 평양은 경애하는

표 4. 북한 지리교과서의 주요 목차(2000년경 출판)

북한의 지리교과서	주요 목차	지리학의 분야
지리 (고등중학교 1학년용)	제1장 우리가 사는 지구와 지도 제2장 지형 제3장 날씨와 그 변화 제4장 강과 호수 제5장 바다	자연지리학 기본 지식 (지구과학, 지도학, 지형학, 기상학, 기후학, 수문학, 해양학 등)
지리 (고등중학교 2학년용)	제1장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와 령토의 크기, 행정구역 제2장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 제3장 우리 나라의 지형 제4장 우리 나라의 바다 제5장 우리 나라의 기후 제6장 우리 나라의 강과 호수, 지하수 제7장 우리 나라의 동식물의 분포와 자연보호구	우리 나라에 대한 자연지리학
지리 (고등중학교 3학년용)	제1장 서북지방 제2장 동북지방 제3장 중부지방 제4장 서남지방 제5장 동남지방	우리 나라에 대한 지역지리학
지리 (고등중학교 4학년용)	제1장 아시아주 제2장 유럽주 제3장 아프리카주 제4장 북아메리카주 제5장 남아메리카주 제6장 오세안주와 량극지방	세계지리
지리 (고등중학교 5학년용)	제1장 지구의 성층구조와 운동 제2장 대기와 바다 제3장 지구겉면의 변화 제4장 지구상의 생물과 토양 제5장 환경보호 제6장 지도 제7장 우리 나라 경제배치	자연지리학 심화 지식 (지구과학, 기상학, 지형학, 생물지리학, 환경보호, 지도학, 경제지리학 등)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혁명의 수도이며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2)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1990년경에 출판된 북한 지리교과서의 특성 중 하나는 소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싣고 있는 데 있었다. '교시' 혹은 '말씀'은 각종 모임에서 김일성 부자가 행한 설교 연설이나 현장지도 발언을 지칭하는데, 김일성의 것은 '교시'로, 그리고 김정일의 것은 '말씀'으로 표현되었다. 1990년에 출판된 북한 고등중학교 2학년용과 3학년용 지리교과서에는 '김일성 교시'가 총 45개나 실려 있고 '김정일 말씀'이 총 17개나 실려 있다.

2000년경에 출판된 북한 지리교과서에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싣고 있다. 2000년에 출판된 북한 고등중학교 2학년용과 3학년용 지리교과

서에는 '김일성 교시'가 총 24개나 실려 있고 '김정일 말씀'이 총 20개나 실려 있다. 10년 전에 출판된 북한 지리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김일성 교시'가 총 21개가 줄어들었지만, '김정일 말씀'은 오히려 3개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의 사례>

사례 1. (1990년 고등중 2, p.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대륙의 동쪽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나라는 북은 대륙과 잇닿아있고 동서남세면은 바다로 둘러싸여있습니다.>>

사례 2. (1990년 고등중 2, p.2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계의 <광물보존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사례 3. (2000년 고등중 2, p.5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서해에는 물고기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맛있는 고급어족들이 많습니다.>>

사례 4. (2000년 고등중 2, p.4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인것만큼 바다를 적극 개척하는 동시에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교과서와 2000년 교과서가 동일한 내용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다수 싣고 있었다. 다만 김일성에 대한 호칭이 1990년 교과서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이었으나 2000년 교과서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으로 바뀌었고, 김정일에 대한 호칭이 1990년 교과서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이었으나 2000년 교과서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으로 바뀌었다.

3) 남한 체제 비방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남한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을 다수 싣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은 ……”, “미제침략자들은 ……”, “미제와 그 앞장이들의 반동통치로 인하여 ……” 등으로 시작하고 있든지, “……군사기지로 짓밟히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고 있다.” 등으로 맺는다. 남한 체제를 비방하는 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 체제 비방의 사례>

사례 1. (1990년 고등중 2, p.7) 남조선괴뢰도당

지형학 용어

감탕(진흙)	강가다락땅(하안단구)
강바닥비탈(하상구배)	강바닥물매(하상구배)
짜임작용(침식작용)	땅겹떼기(지각)
땅끓임면(단층면)	땅끓임선(단층선)
땅끓임호(단층호)	돌고드름(중유석)
돌순(석순)	모래부리(사취)
물매(경사도)	물운도(수운)
미세기차(간만의 차)	바다가(해안)
바다가벌(해안 평야)	바다가지대(해안 지대)
버럭(버럭, 잡석)	벌(평야)
벌방지대(평원 지대)	비탈(경사)
비탈면(경사면)	산줄기(산맥)
쌓임작용(퇴적작용)	속돌(부석, 화산탄)
습한땅(습지)	암장(마그마, 용암)
언덕(구릉)	언덕벌(구릉성 평야)
층적벌(층적평야)	흙모래(토사)

은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일제가 만들어놓았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침략적목적과 약탈정책에 유리하게 일부 행정구역을 뜯어고쳤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전라남도에 속해있던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만들며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하나의 도를 만들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를 직할시로 만들었다.

사례 2. (1990년 고등중 3, p.88)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삼척, 영월 지구의 풍부한 자원들을 약탈할 목적으로 도안에 발전시설을 늘이는 한편 침략전쟁준비에 필요한 시멘트공장들을 끌어들이었다. (중략) 그러나 여기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학교와 살림집, 공장을 짓는데 쓰이는것이 아니라 침략전쟁준비를 위한 군용도로와 군사시설을 늘이는데 쓰이고 있다.

사례 3. (2000년 고등중 2, p.39) 오늘 호남벌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동통치로 하여 옛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사례 4. (2000년 고등중 3, p.61) 서울은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쇼통치기구가 집결되어 있는 반동소굴이며 식민지통치의 아성으로 되고 있다.

5. 북한 지리교과서의 이질적인 용어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남한의 것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순수한 우리말의 용어가 남한보다 북한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

기후학 용어

가물(가뭄)
 기온의 하루변화(기온의 일교차)
 맹한현상(한랭 현상)
 빗물(우수)
 철바람(계절풍)
 큰물피해(홍수 피해)
 하루평균기온(일일평균기온)
 한해평균강수량(연평균 강수량)
 해비침시간(일조시간)
 자연지리학과 관련된 기타 용어

뚝(제방)
 바늘잎나무(침엽수)
 사철푸른넓은잎나무(상록활엽수)
 떠살이생물(플랑크톤)
 인문지리학과 관련된 용어

가까운바다(근해)
 고치실(견사)
 농사짓기(농업)
 려객배(여객선)
 문헌량(매장량)
 물고기잡이량(어획량)
 바다나물(해조류)
 부침땅면적(경작지 면적)
 아낙(내부)
 임진조국전쟁(임진왜란)
 조선해협(대한 해협)

강냉이(옥수수)
 나무자원(삼림자원)
 다락밭(계단식 밭)
 먹는물(식수)
 물고기잡이(어업)
 물고기통줄임(생선통조림)
 배무이공장(조선소)
 소금밭(염전)
 알곡(곡물)
 찻떡이류(포유류)
 집배(화물선)

금강내기바람(늪새바람)
 기온의 한해차(기온의 연교차)
 매달평균기온(월평균 기온)
 여름철바람(하계 계절풍)
 큰물(홍수)
 하루기온차(기온의 일교차)
 한해강수량(연강수량)
 한해평균기온(연평균 기온)

넓은잎나무(활엽수)
 사철푸른나무(상록수)
 소금기(염도)

고기배(어선)
 남새(채소)
 두벌농사(그루같이)
 먼바다(원양; 원해)
 물고기잡이기지(어업기지)
 물흐름속도(유속)
 부침땅(경작지)
 쇠돌(철광석)
 인견실(인견사)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집짐승(가축)

한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이질적인 용어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북한의 지리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용어가 함께 사용되기도 된다.

- ① ‘마그마’를 ‘마그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암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② ‘용기운동’을 ‘룡기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솟음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③ ‘매장량’을 ‘매장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문헌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④ ‘부석’을 ‘부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속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⑤ ‘이모작’을 ‘2모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벌농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⑥ ‘침식작용’을 ‘침식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깎임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⑦ ‘경사지’를 ‘경사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탈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⑧ ‘어선’을 ‘어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기배’라

고 부르기도 한다.

6. 북한 지리교과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북한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남한의 것과는 다소 다르다. 여기서는 북한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만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두음법칙 무시

녕변(영변), 녕월(영월), 뇨소비료(요소 비료), 라선시(나선시), 락동강류역(낙동강 유역), 락엽층(낙엽층), 락원(낙원), 락차(낙차), 락후한(낙후한), 랑림산줄기(낭림 산맥), 랑림호(낭림호), 락탈하다(약탈하다), 랑강도(양강도), 랑동(냉동), 려객선(여객선), 려수(여수), 려사(역사), 려압(역압), 려결하다(연결하다), 려남지방(영남 지방), 려도(영도), 려동

지방(영동 지방)

2) 띄어쓰기가 다른 것

- ① ~곳(~ 곳), ~것(~ 것), ~수(~ 수), ~데(~ 데), ~중(~ 중), ~속(~ 속), ~중(~ 중), ~척(~ 척), 색(~ 색),

더운곳에서(더운 곳에서), 유서깊은곳이다(유서 깊은 곳이다), 깊지 않은곳에(깊지 않은 곳에), 바뀌는것이(바뀌는 것이), 높이는것이(높이는 것이), 바라볼수 있다(바라볼 수 있다), 받아들일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발전시키는데 유리합니다(발전 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변화된데 있다(변화된 데 있다), 높이는데서 중요하다(높이는 데 중요하다), 광천들중에서(광천들 중에서), 아늑한 정원속에(아늑한 정원 속에), 수백종의 화학제품들을(수백 종의 화학제품들을), 큰 배도 몇척씩 델수 있고(큰 배도 몇 척씩 델 수 있고), 붉은색기호(붉은 색 기호), 푸른색기호(푸른 색 기호)

- ② ~르뿐(~르 뿐), ~르뿐아니라(~르 뿐 아니라), ~르뿐만아니라(~르 뿐만 아니라)

취가 있을뿐 뱀류는 없으며(취가 있을 뿐 뱀류는 없으며), 많을뿐아니라(많을 뿐 아니라), 묻혀있을뿐아니라(묻혀 있을 뿐 아니라), 변해가고있을뿐 아니라(변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보물고를 이를 뿐아니라(보물고를 이를 뿐 아니라), 차지할뿐아니라(차지할 뿐 아니라), 넓을뿐만아니라(넓을 뿐만 아니라)

- ③ ~적[명사](~적 [명사])

경제적잠재력(경제적 잠재력), 군중적운동(군중적 운동), 영토적개념(영토적 개념), 민족적공지(민족적 공지), 섬멸적타격(섬멸적 타격), 세계적명산(세계적 명산), 세기적숙망(세기적 숙망), 원료적측면(원료적 측면)

- ④ ~때문에(~ 때문에), ~때문이다(~ 때문이다)

못하기때문에(못하기 때문에), 놓여있기때문에(놓여 있기 때문에), 류화수소가 들어있기때문에(유화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동해갈수 없었기때문에(이동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 보호하기때문에(적극 보호하기 때문에), 구름을 이루기때문이다(구름을 이루기 때문이다)

- ⑤ 명사+ 명사

공산주의혁명투사(공산주의 혁명 투사), 기온차이(기온 차이), 김정숙어머님(김정숙 어머니), 대동강기슭(대동강 기슭), 모란봉기슭(모란봉 기슭), 백두산천지(백두산 천지), 사회주의건설장(사회주의 건설장), 한라산꼭대기(한라산 정상부), 한라산중턱(한라산 중턱), 압록강분류(압록강 분류), 도자기생산지(도자기 생산지)

- ⑥ 그 외에 띄어쓰기가 다른 것

뚝고올라왔다(뚝고 올라왔다), 그가운데서(그 가운데서), 크고작은 분지들(크고 작은 분지들), 대규모수력발전소(대규모 수력발전소), 경치좋은곳들이 많다(경치 좋은 곳들이 많다), 목란은 인민의 기상을 간직한 국화로 이름떨치며(목란은 인민의 기상을 간직한 국화로 이름을 떨치며), 원산북쪽의 지역(원산 북쪽의 지역), 대부분지역에서(대부분 지역에서), 주요특산물이다(주요 특산물이다)

3) 표현방식이 다른 것

- ① 우(위 혹은 상)

우에서 본바와 같이(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땅우에 드러나게 되었다(지표에 드러나게 되었다) 바다물우로 드러날수 있다(해수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 ② 일떠서다(기운차게 벌떡 일어서다)

대동강상류에는 강을 막아서 금성호와 발전소가 일떠섰다.
두만강의 지류들에는 자그마한 발전소가 일떠섰다. 삼지연혁명사적관이 일떠섰다.

- ③ 꾸리다(손질하여 보기 좋게 만들다)

유원지와 공원들이 꾸러졌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꾸러진 동물원이 있다.
회천을 우리 나라 공작기계생산의 중심지로 꾸려주시었다.

- ④ 역할을 놀다(역할을 하다)

중요한 역할을 노는것은 산줄기의 방향과 높이이다.
금성호는 대동강의 물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역할을 놀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에서 황해발전소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큼니다.

- ⑤ <명사+ 형용사(형용사)>
 경치아름답고 향기그윽한 묘향산(경치가 아름답고 향기가 그윽한 묘향산)
 물맑고 풍치아름다운 강(물이 맑고 풍치가 아름다운 강)
 경치좋은 호수가(경치가 좋은 호수가)
- ⑥ <알맞춤한(알맞은)>
 누에치기에 알맞춤한 기후(누에치기에 알맞은 기후)
 생활에 알맞춤한 온대기후(생활에 알맞은 온대기후)
 비도 알맞춤하게 내린다(비도 알맞게 내린다)
- ⑦ <해빛(햇빛), 오래동안(오랫동안), 떼목(뗏목), 비물(빗물), 배길(뱃길)>
 해빛을 고르롭게 받지 못한다(햇빛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흐린 날씨가 오래동안 계속된다(흐린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된다)
 두만강은 떼목길로 쓰이며(두만강은 뗏목 길로 이용되며)
 많은 량의 비물을 저장한다(많은 양의 빗물을 저장한다)
 이 저수지는 배길로도 쓰인다(이 저수지는 뱃길로도 쓰인다)

4) 외래어 표기

북한 지리교과서에서는 남한 지리교과서에 비해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외래어는 영어식이 아니라 러시아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7. 맺는말

교과서는 교육을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의 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교육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남·북한의 교과서가 심히 다르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한의 교과서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남·북한의 교과서 통합을 추진하는 작업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가 상대방의 사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서로 인정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이고, 북한의 교과서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는 북한의 교과서 내용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교과서 내용을 고찰하고 소개하는 작업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가스빠해(카스피 해)	파테말라(파테말라)
구라파(유럽)	까라꿈사막(카라쿰 사막)
까자흐(카자크)	까자흐스뎨(카자흐스탄)
까타르(카타르)	까히라(카이로)
깡까즈산줄기(카프카스 산맥)	꼬스타리카(코스타리카)
꾸바(쿠바)	끼르기즈스탄(키르기스스탄)
네데를란드(네덜란드)	대안뎨제도(대안틸리스 제도)
도이칠란드(독일)	뉘니지(튀니지)
로씨야(러시아)	리뜨바(라트비아)
뚜르크메니스뎨(투르크메니스탄)	뜨락뜨르(트랙터)
띠띠까하호(티티카카 호)	마다가스까르(마다가스카르)
마케도니아(마케도니아)	말디브(몰디브)
말라까해협(말라카 해협)	말라이반도(말라이 반도)
만마(미얀마)	메터(미터)
메히꼬(멕시코)	모잠비끄(모잠비크)

바티칸(바티칸)	방글라데슈(방글라데시)
방콕(방콕)	بلغاری아(불가리아)
베링그해(베링 해)	벨라루씨(벨로루시)
벨리제(벨리즈)	볼도젤(볼도지)
비날론(비날)	파나마운하(파나마 운하)
빠미르고원(파미르 고원)	빠스(버스)
빠루(페루)	포르투갈(포르투갈)
빨스카(폴란드)	세멘트(시멘트)
소안털제도(소안털리스 제도)	스웨리에(스웨덴)
스웨질랜드(스와질란드)	스콜르(스콜)
싸반나(사바나)	살바도르(살바도르)
세인트로렌스강(세인트로렌스 강)	쏘련(소련)
쑤베트(소비에트)	수마트라섬(수마트라 섬)
씨르다리아강(시르다리아 강)	씨비리(시베리아)
아마조나스평원(아마존 분지)	아이피(아이티)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	아세아(아시아)
알루미늄(알루미늄)	앙카라(앙카라)
애굽(이집트)	애플레이치산줄기(애플래치아 산맥)
에스토니아(에스토니아)	에스빠냐(에스파냐)
에질트(이집트)	오세안주(오세아니아 주)
오호쯔크해(오호쯔크 해)	우즈베끄(우즈베크)
우즈베끼스탄(우즈베키스탄)	월남(월남)
이탈리아(이탈리아)	자카르따(자카르타)
캐나다(캐나다)	캄보쟈(캄보디아)
튀르키예(터키)	힌두쿠쉬산줄기(힌두쿠시 산맥)

본 연구에서는 1990년경에 출판된 북한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 5권과 2000년경에 출판된 북한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 5권을 분석하였다. 북한 지리교과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고등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지리 과목의 수업목표, 학습목표, 학습목적은 지리교과서 머리말에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학습목적은 남한의 것과 크게 다르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단순한 지리적 현상이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지어 설명됨으로써 지리 과목은 사회주의 혁명에 필요한 사상과 지식을 주입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사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더라도 북한 교과서를 이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 부자에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가를 길러내는 데에 학습목적을 두고 있는 북한의 교과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리가 차지하는 위상이 남한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리가 차지하는 위상보다 좀더 확고하다고 하겠다. 남한의 지리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사회과에 통합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사회에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가 선택과목에 속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고등중학교에서는 5개 학년에 걸쳐서 지리가 독립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고, 지리 수업시간이 역사 수업시간보다도 많다. 특히 북한의 지리교과서에서는 자연지리학 분야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북한의 자연지리학은 남한의 지구과학·대기과학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고 있다. 중·소 단원의 첫머리에 지리학의 주요 개념들이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의 형식을 빌려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 본문 중에서도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이 나타난다. 또한 북한 지리교과서에서는 혁명의 식의 고취 및 공산주의 교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김일성 부자뿐만 아니라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남한을 비판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미국·일본을 약탈자로 표현하고 있고, 남한의 국토 이용을 서술할 때는 예외 없이 국토를 훼손하거나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지리교과서에서 사용한 학술용어가 남한의 학술용어와 다른 점이 많다. 남·북한 지리교육자나 지리학자들이 상호 방문하여 학술적 교류를 하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지리학 영역뿐만 아니라 각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교류를 통해 학술용어상의 표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는 순수한 우리말의 학술용어를 개발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오늘날 북한에서 사용되는 학술용어 중에서는 우리가 당장 채택하여 사용하여도 좋은 용어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북한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를 분석해보면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남한의 것과 심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지리교과서에서는 남한의 것과 다른 표현이 많이 발견된다. 우리는 학술용어상의 표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의 언어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1990년경의 지리교과서와 2000년경의 지리교과서를 비교해보면, 북한 사회의 변화가 지리교과서에 별로 투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1990년대의 10년 동안 일어난 북한 사회의 변화가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에 주목하였지만, 김일성 사망으로 인하여 김일성 부자에 대한 호칭이 바뀐 것만이 분명하게 나타날 뿐이고 별로 주목할만한 변화 사항을 찾지 못하였다. 북한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일 뿐 아니라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註

- 1) 연도별 방북자는 1989년 1명으로 시작, 1997년 1천15명으로 1천명을 처음 넘어섰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던 2000년 7천280명에 이어 2001년 8천551명, 2002년 1만2천825명, 2003년 1만5천280명, 2004년 2만6천213명 등으로 증가했다.

참 고 문 헌

강환웅, 2002, 북한 지리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재완, 2003, 남북한 중등지리 교과서의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2), 153-168.

남상준, 1993, 북한 지리교육의 정향, 사회과교육 26, 150-160.

남상준·손용택·유재명, 1997, 남북한 중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CR 97-53) 보고서.

손용택, 1993, 북한의 조선지리교과서 내용분석, 사회과교육 26, 168-181.

손용택, 2004, 남·북한 지리교과서 내용구성의 체제 탐색과 대(對)북미관(觀), 지리학연구 38(3), 199-214.

이양우, 1993, 북한의 지리 교육: 남북한 지리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회과교육 26, 129-149.

최석진 외, 1997, 남북한 중등학교 지리과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봉희, 1993, 북한의 세계지리교과서 분석, 사회과교육 26, 161-167.

황재기, 1993, 북한의 지리교과서 분석, 북한의 사회과학 교육 실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북한의 지리 교과서>

박홍준, 1991.1.14, 지리(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문영빈·원용범·안성룡, 1990.8.27, 지리(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박홍준·강응주, 1991.5.21, 지리(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승일룡·진영군, 1991.6.14, 지리(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문영빈·장인규, 1991.3.31, 지리(고등중학교 5), 교육도서출판사.

임경승·차용걸, 2001.9.11, 지리(고등중학교 1), 교

- 육도서출판사.
이성룡·박광필·진영군, 1998.6.23, 지리(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안성룡·진영군, 2001.8.10, 지리(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명응범·이말복, 2001.7.26, 지리(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진창훈, 2001.7.21, 지리(고등중학교 5), 교육도서출판사.

(접수 : 2005. 9. 30, 채택 : 2005. 10. 31)